

2017. 03.
Vol.34



2016년 청년 사회·경제 실태조사 ¹⁾

김기현 선임연구위원 kihuns@nypi.re.kr

하형석 부연구위원 hsha@nypi.re.kr

개요

- 조사목적** ▶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① 인구와 가족, ② 교육, ③ 경제, ④ 주거, ⑤ 건강, ⑥ 문화와 가치관, ⑦ 관계와 참여의 총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「2016년 청년 사회·경제 실태조사」를 실시하였음.
- 조사대상** ▶ 국내에 거주하는 만 15세~39세의 일반국민
▶ 전체 2,534명, 남자 1,315명(51.9%), 여자 1,219명(48.1%), 만 15~18세 363명(14.3%), 만 19~29세 1,073명(42.4%), 만 30~39세 1,098명(43.3%)
- 조사방법** ▶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
- 조사기간** ▶ 2016년 6월 ~ 8월

1) 본 청소년 통계 브리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도 연구과제인 '청년 사회·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' 보고서의 일부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.

1 청년들이 생각하는 아동, 청소년, 청년 연령 정의

- 2016년 청년 사회·경제 실태조사 결과 아동 5.2세~11.5세, 청소년 12.6세~18.4세, 청년 19.3세~29.5세로 연령에 대한 생각이 조사됨.
- 아동, 청소년, 청년 연령정의에 대해 관례적이고 정서적인 용법이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.
- 특히, 연령대에 따른 응답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30대 응답자들은 자신들을 청년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짐작해 볼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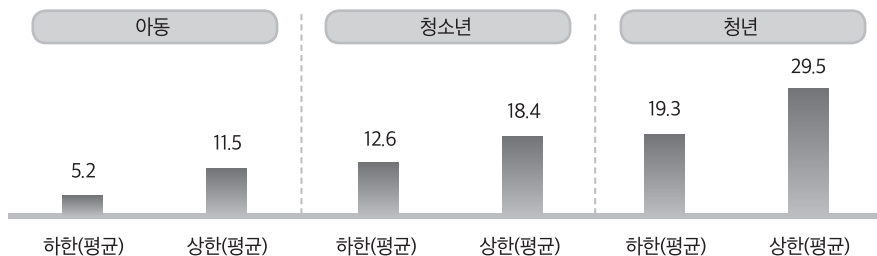


그림 1 아동, 청소년, 청년 연령에 대한 응답 결과(세)

2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교육환경

- 청년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.
- “대학을 나오는 것은 필수다”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(42.7%)이 부정적인 응답(26.2%)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.
- “한국은 학벌사회다”라는 질문에 대해서 만 15~39세 응답자들은 68.5%가 “그렇다”라고 응답함.
- 청년들은 대학을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 기능에는 부정적으로, 취업을 위한 기능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.

- 만 15~39세 청년들 중에서 36.6%는 대학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. 긍정적인 응답은 27.3%에 그쳐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.
- 대학에 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이 41.4%로 부정적인 응답 23.3%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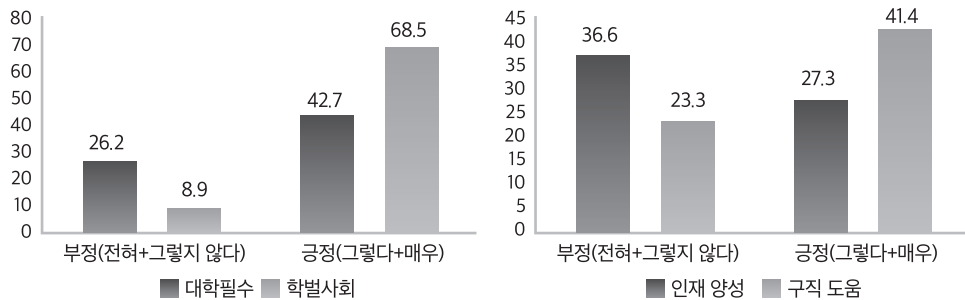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(%)

■ 청년들은 2025년에도 입시경쟁이 약화되기보다는 유지되거나 강화될 것으로 생각함.

- 만 15~39세 청년들 중 71.7%는 향후 2025년에 입시경쟁이 유지되거나 강화될 것(유지: 36.2%, 강화: 35.5%)으로 응답하고 있음.
- 이는 입시경쟁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, 저출산 영향으로 대학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줄어들어 입시경쟁이 약화될 것이라는 연구들과 배치되는 결과임.
- 이처럼 청년들이 입시경쟁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현재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, 이러한 결과는 대학 진학 중심과 입시 위주의 경쟁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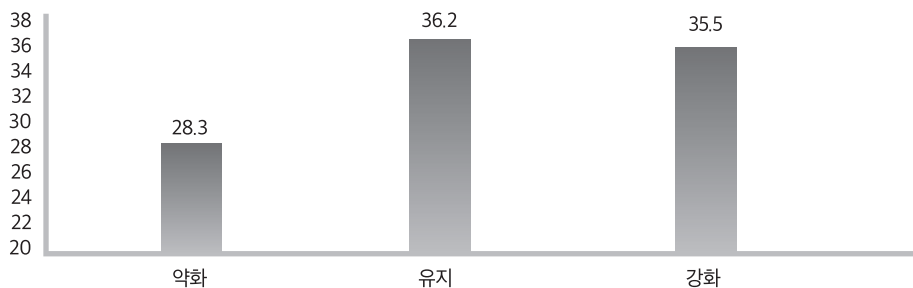


그림 3 우리나라 입시경쟁에 대한 전망(2025년) 응답 결과(%)

3 고용관련 청년 의견 및 실태

■ 청년들은 고용 및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에 대해 안정적인 회사(31.0%)를 적성에 맞는 회사(25.6%)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함.

— 다음으로 급여가 높은 회사(18.3%),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(10.5%), 분위기 좋은 회사(8.8%)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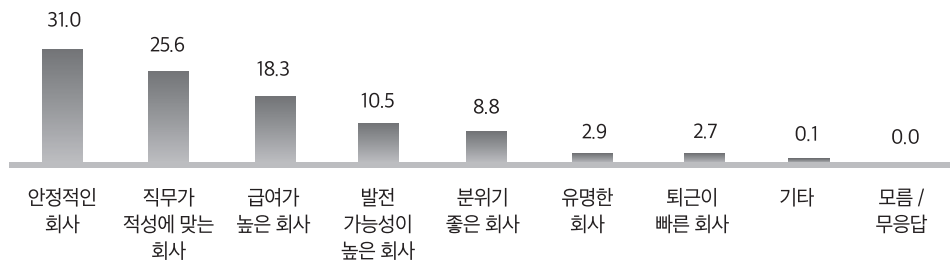


그림 4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(%)

■ 청년의 31.1%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,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고용 불안정(28.8%)을 그 다음 이유로는 낮은 급여 수준(22.6%)을 꼽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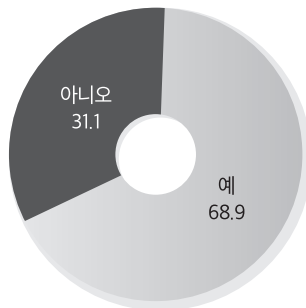


그림 5 중소기업 취업 의향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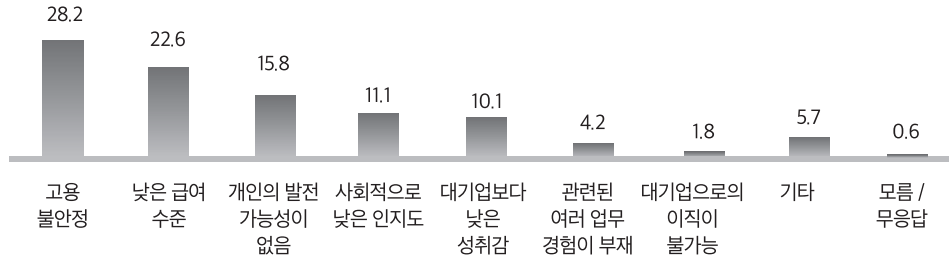


그림 6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(%)

- 현재 취업중인 청년들의 84.4%는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 (보통포함) 하였고, 59.7%는 현재 하는 일과 전공분야가 불일치한다고 응답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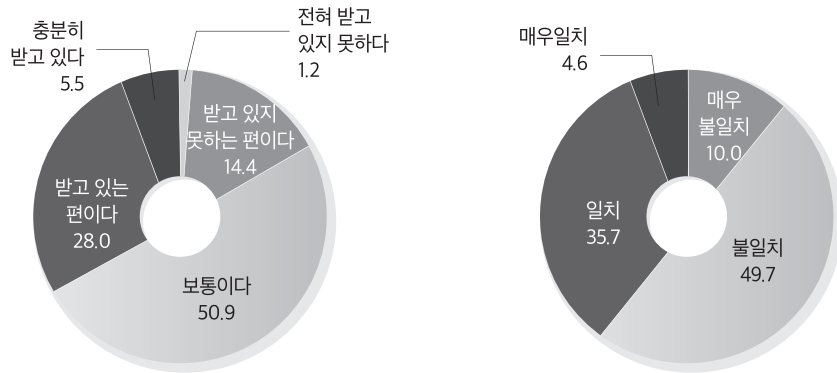


그림 7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및 현재 하는 일과 전공 분야 일치 정도 응답 결과(%)

- 청년들은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를 개인/교육 등과 같은 노동 공급(16.9%) 측면보다는 일자리/경제 등과 같은 노동 수요(83.1%) 측면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함.

-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'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(27.3%)'를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'학교의 취업지원 강화(24.6%)'를 꼽음.
-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불안정이고,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에는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로 응답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, 중소기업의 고용이 안정된다면 청년들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충분히 있음을 시사함.



- 27.3%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관철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
- 26.6% 청년 창업/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
- 16.9% 공공부문 채용 확대
- 14.6%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
- 6.5%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
- 5.3%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
- 2.4% 해외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

그림 8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(%)



- 24.6% 청년들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
- 17.9%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
- 15.5%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
- 14.5%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
- 12.8% 독일이나 스위스식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
- 12.8%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(청년 눈높이 제고)
- 1.7%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수당/배당/급여 지급

그림 9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(%)

■ 청년들이 생각하는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공(20.2%) 보다는 개인 능력(39.3%)인 것으로 조사됨.

— 전공(20.2%) 다음으로 학벌(출신 학교의 명성, 12.6%)이 뒤를 이었고, 자격증(11.0%), 인성(10.0%), 외모(2.6%), 어학 점수(1.3%)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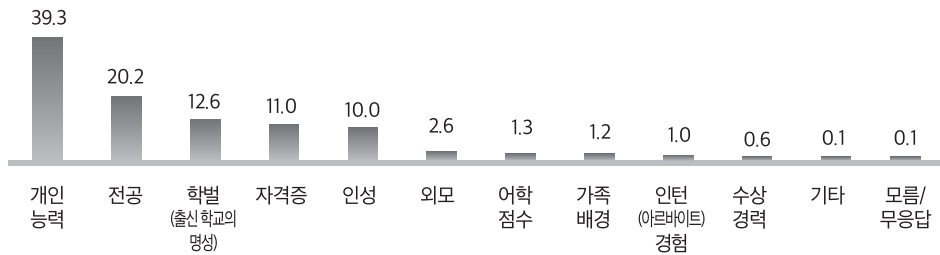


그림 10 취업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(%)

- 청년들은 2025년의 청년 취업경쟁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질문에 43%가 현재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장기적으로 청년들은 취업경쟁이 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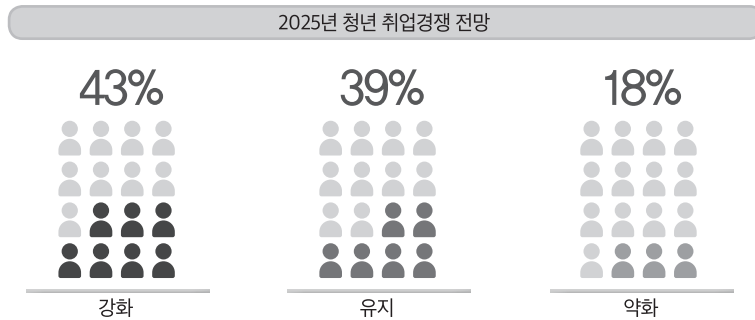


그림 11 2025년 청년 취업경쟁 전망(%)

4 청년들의 주거 현황

- 청년들의 34.8%는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는데 10년에서 20년 걸릴 것으로 예상함.
- 청년들의 주거문제는 고용문제만큼이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고, 이는 너무나 높은 집값 때문에 자립할 시기에 독립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.
 - 20년 이후에나 장만할 것 같다는 의견이 17.8%로 뒤를 이었고, 아예 집을 장만하지 못할 것 같다는 답변도 6.3%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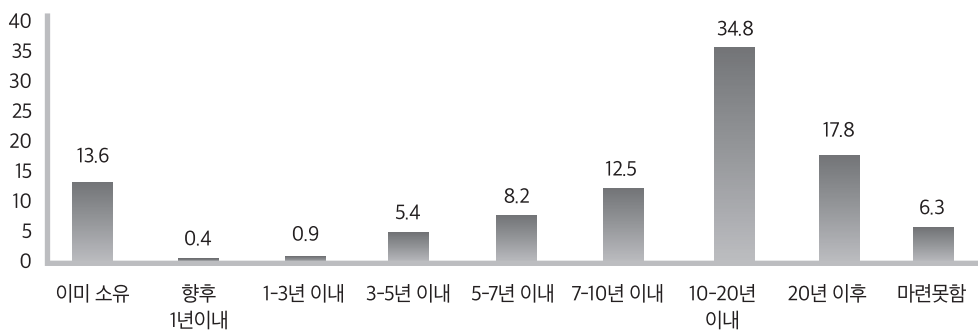


그림 12 현재 주거 현황 및 주거 소유 전망 응답 결과(%)

■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안정과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함.

-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스스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년들의 31.7%는 “그렇다”고 응답하였고 비슷한 수준인 28.4%는 “그렇지 않다”고 답변하여 스스로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.
- 현재 집값 수준으로 15~39세 청년들 중 70% 가까이가 현재 집값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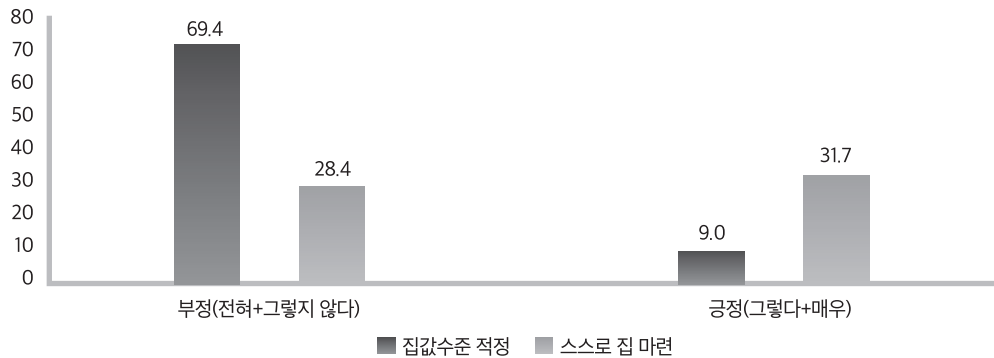


그림 13 현재 집값 수준 적정여부 및 스스로 집 마련에 대한 응답 결과(%)